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장애아 부모들의 상호작용 유형 분석*

이 숙 정**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이 경 아***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요 약》

이 연구는 비교적 불특정 다수의 회원과 익명성이 지배적인 인터넷 동호회 활동에서 포착되기 힘든 회원간의 상호작용 유형을 근거이론에 바탕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장애 대처 전략으로서 구성하는 동호회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 나아가 상호작용을 통한 고립감 극복 및 대처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해당 부모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인과적 조건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같은 경험을 가진 동질집단을 만남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나고자'하였으며, 중심현상으로서 '정보를 얻고자' 여러 대처전략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부모들의 상호작용 및 장애 대처 전략 유형을 결정하는 데는 맥락적 조건(회워가입시기, 사례글 작성시기, 진술 방식)과 중재조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동호회는 해당 부모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아고라로서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장애아 부모, 인터넷 동호회, 근거이론, 대처전략, 상호작용 유형

1. 연구의 필요성

자녀의 장애를 심리적으로 수용하며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부모로서 한 개인에게는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큰 위기이며, 동시에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coping strategy가 필요한 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양육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 부담 외에 장애아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많은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Gammon, 1989; Abidin, 1990;

* 이 논문은 2006년 제 2단계 BK21 연구 사업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제 1저자, 교신저자(rhiesj@dankook.ac.kr)

*** 단국대학교 제 2단계 BK21 특수교육 연구사업팀 참여대학원생

Gargiulo, 1985), 이러한 양육행동에 있어서 부모의 적절한 대응 여부가 장애아동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Field, 1978; 1980). 또한 해당 부모들의 장애 수용 및 장애에 따른 생애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역시 한 번에 해결되는 순차적 과제이기 보다는 다단계의 복합적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서, “삶의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에 따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신현기, 1999) 힘든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족 내에서 장애아동과 부모가 모두 생애주기별로 반복적으로 겪어야 하는 교육 및 양육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고민과 자기 성찰을 요구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자문과 정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된다. 특히 핵가족 시대 및 맞벌이 부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가정에서 장애아동 양육에 관한 정보나 조언, 나아가 정신적 지지를 주변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해당 가정 주변에 도움을 제공할 만한 지역사회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이유에서 인터넷상에 각종 장애관련 사이트나 해당 부모들 간의 “가상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공동체, 혹은 “가상커뮤니티”(cyber community)란 공동의 관심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이는 집단(Hagel & Armstrong, 1977)으로써,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에서 서로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공통 관심 외에도 정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모인 “인터넷 동호회”를 들 수 있다.

컴퓨터 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이 이루어낸 이와 같은 웹 사이트의 “가상공간”(cyber space)은 이제 특수교육 공학의 일부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교육 및 상담 나아가 관련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을 위한 공간으로서 애용되고 있으며(Sharon, 2001), 특히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환경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지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장애 및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및 신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비중 있는 사회적 조직망, 제도, 하위문화로서 자리하게 되며, 특히 장애아동 부모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동 양육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특수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애아 부모 지원과제와 관련하여, 해당 부모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상담 및 대화를 통해 심리,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하는 과제를 이러한 “인터넷 동호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당 부모들의 폭넓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 참여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터넷 동호회”의 형성과정, 교류되는 정보내용 및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석인수(2001) 및 이경아(200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 양육 정보를 위해 가상공동체를 활용하는 비율이 일반아동의 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수동적이라고 하였다. 이와 비례하여, 인터넷 동호회 내에서 장애아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연구, 혹은 부모들 간에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장애아 부모들이 인터넷 동호회 내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즉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도 미약한 실정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장애 수용 및 거부에 대한 심리 정서적 과정 및 태도에 대한 이론은 특수교육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면, 삶의 현장에서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겪게 되는, 장애수용이라는 양가 감정적 경험을 이해의 차원에서 포착한 질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아를 둔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평생에 걸친 과업이라고 한다면 장애아 부모들이 가상공동체를 결성하는 중요한 이유에는 심리,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일과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한 요구가 포함될 것이다. 즉 부모들이 사이버 상에서 동호회를 찾아 나서고, 서로 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일종의 장애아 부모들의 “대처 전략”(coping strategy)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장애아 부모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을 분석해 본다면 회원 간 중층적 상호작용의 양태를 비롯하여, 대처전략으로서 상호작용의 특징 및 역동성이 하나의 모델로 드러날 것이며, 이러한 모델을 근거로 장애아 부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부모지원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 중 1인은 장애아를 둔 부모 당사자로서 여러 유형의 장애관련 인터넷 부모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를 가진 아동 부모들이 자조모임 차원에서 결성한,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인터넷 동호회를 발견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위의 ADHD 아동 부모 인터넷 동호회 자유게시판의 사례 글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한 부모들의 상호작용 유형을 밝히고 대처전략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1. 인터넷 동호회 사례글에 나타난 장애아 부모들 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어떠한가?
2. 사례글에 나타난 장애아 부모들 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개인의 장애에 대한 대처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즉 문자를 매개로 한 회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 담긴 의도나 글에 대한 해석을 중심적인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장애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하는 맥락이나 그 과정, 나아가 상호작용의 성격 및 양상,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질

적 접근(Lincoln & Guba, 1985)을 연구방법으로 하며, 특히 근거 이론적 분석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1. 연구자와 참여자

이 연구는 ADHD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터넷 동호회인 ‘꿈을 안고 내일로 가는 우리들(http://cafe.daum.net/ADHDParents)’의 회원들이 동호회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쓴 글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즉 동호회 회원은 연구의 참여자이자, 동시에 연구 자료의 제보자로 간주된다. 2003년 9월 개설된 위 인터넷 동호회는 주로 당사자 부모들만이 정 회원이 되는 회원 규정이 있으며, 아동 양육 및 장애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공유되며, 이와 관련된 회원들 간의 양 방향적인 질문과 응답이 제공되고, 나아가 어머니 회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 및 교류와 관련된 글들도 빈번히 등장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오프라인(면대면(面對面) 모임을 지칭)상의 만남으로도 나타났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본 연구기간 동안은 참여관찰 수준으로 연구에 참여하며, 연구 자료도 연구자와 연관된 것은 제외시켰다.

2. 연구자료 선정

위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게시되는 글은 그 유형에 따라 18개의 게시판에 올려지며 대표적인 게시판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II-1> 게시판 내역

회원 수	게시판	내용
814(417)	아우성	자유게시판
294(204)	무지개사랑방	아이들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회원간의 이야기 나누기 방
	새로 왔어요	새로 들어온 회원과 등급 상향을 원하는 회원의 요청 방
	비밀의 회원	닉네임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야기 방
	정보공유	학습기관, 행사 정보, 생활의 정보 나눔 방
	우리만의 교과서	자주 올라오는 질문을 모아 회원들이 만든 ADHD 정보방
	제 1기 부모교육실	온라인으로 실시한 부모교육 자료실(2003.10-2004.3)
	제 2기 부모교육실	온라인으로 실시한 부모교육 자료실(2004.7-2004.10)
3(3)	운영자방	운영자들의 개인 공간
	지식 게시판	전문적인 학습 자료나 ADHD 정보를 나누는 방

(위 회원수 옆 괄호 안에 기재된 수는 해당 회원 중 자녀진단이 ADHD로 판명된 경우의 수를 의미)

위의 게시판에 따른 회원수는 해당 게시판 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 등급이 요청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자료 선정과 관련하여 게시판 글 기준으로 가능하면 많은 회원의 관심에 부합하고, 많은 회원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 글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 회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읽을 수 있는 게시판 “아우성”을 선정하였다.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아우성 방에 접근 가능한 회원은 총 814명이며 그 중 자녀의 진단이 ADHD로 판명된 경우는 417 명이다. 아우성 방 회원 중 자녀의 학령 분포는 유치원 202명, 초등 535명, 중등이상 55명으로 초등연령대가 제일 많았다.

3. 연구 대상 자료 수집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인터넷 동호회의 자유게시판인 아우성에 올려진 글이다. 2년간을 분석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동호회 개설 시점인 2003년 9월 이후 안정적 운영이 시작된 2003년 11월부터 만 2년간인 2005년 11월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1년 이상 위 동호회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3월 학기 초에 올라오는 글의 내용은 주로 학교의 부적응 문제 등이며,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에는 동호회 활동이 평소보다 적으며, 추석이 낀 9월이나 10월에는 글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5년 11월의 경우에는 11월 22일에 서울에서 열린 부모교육 강연회와 관련한 글이 11월 22일 이후 60개 이상 첨가되어 이전의 게시판의 글과 성격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므로 수집기간을 2005년 11월 22일 이전까지로 한정하여 수집하였다.

4. 연구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초기 발전되고,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정리된 근거 이론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의 근거에는 인간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세계 및 인식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즉 이 연구와 관련해 볼 때,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인터넷 동호회 다른 부모들과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지식 습득 뿐 아니라 알게 모르게 이에 관련된 자신의 신념 및 장애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ADHD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특히 아우성이라는 자유게시판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공동된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지,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가 경우에 따라 부모들 개개인에게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수집과 분류, 분석절차로는 1단계는 수집, 2단계는 분류, 그리고 3단계로 분석의 단계를 거친다. 근거이론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1단계인 수집과 2단계인 분류, 그리고 3단계인 분석 중 개방코딩(open coding) 단계는 거의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 수집은 원자료화(raw data)로써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하는 일이다. 1차 수집은 2003년 11월, 2004년 11월, 2005년 11월의 734개 사례 글을 모았다. 2차 수집은 2003년 9월 이후 2005년 11월 22일 까지 전체 글 7334개중 무작위로 20개당 1~2개 개수로 390개 선별하였다.

2단계 분류는 4차례 이루어졌다. 1차 분류는 1차 수집 자료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주된 관심사를 나누었다. 2차 분류는 2차 수집된 사례 글을 대상으로 1차 분류의 내용범주를 수정·보완하였다. 3차 분류에서는 2차 수집된 사례 글을 대상으로 각 조건이 영향을 끼치는 바를 알아보고자 각 회원의 가입시기와 사례 글 작성 시기, 진술방식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각 영역을 명명하였다. 가입 시기는 2003년과 2004년, 2005년, 3개로 구분하였으나 명명에서는 편의상 2003년과 2004년에 가입한 회원을 '초기회원'이라 하고, 그 중 현재(2005년 11월)까지 1년 이상 참여한 회원 즉, 2003년과 2004년 가입한 초기회원 중 활동을 유지하는 회원을 '고참'이라 명명하였다. 2005년 이후 가입한 최근회원은 '신참'이라 명명하였다. 사례 글 작성 시기는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2005년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모든 회원에 대해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쓴 글은 '초기 글'이라 하고, 고참의 2003년과 2004년의 글 '이전 글', 2005년 8월 이후의 글은 '요즘 글'이라 구별하였다. 진술방식에서 '대화체'라 함은 상대방을 앞에 두고 대화하듯 서술한 방식이고, '독백체'는 스스로 혼잣말을 하듯 기술한 방식으로 보았다. 시기와 진술방식의 범주 분류 기호명명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시기와 진술방식의 범주 분류 기호·명명

분류영역	회원가입시기			사례 글 작성 시기			진술방식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A	B
분류기호	I	II	III	i	ii	iii	A	B
명명	고참		신참	이전 글		요즘 글	대화체	독백체

4차 분류는 2차 수집된 사례 글을 대상으로 각 관심사 하위범주에 속하는 사례 글들을 반복해서 읽으며 사례에 포함된 개념을 사례 당 2~3개로 메모한 후에 동일개념을 묶는 방식으로 관심사 하위범주에서 내용하위 범주 25개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내용 하위 범주는 관심사 모두를 포괄하여 내용 상위범주 3개로 묶었다. 2차 수집에 포함되지 않은 원자료의 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다시 읽어가며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범주가 있거나 중복된 것이 있는지 재검토하였다.

3단계 분석의 단계는 개방코딩과 축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개방코딩 과정은 자료에서 개념을 밝히고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례 글 자료를 분류하면서 찾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과정(개념화)에서 출발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 작용/상호작용의 특정한 속성을 대표하는 설명적 용어인 범주(카테고리)와 하위범주를 구성한다. 개방코딩의 단계는 2단계의 3차 분류와 함께 이루어졌다. 사례 글 관심사 및 내용의 범주구분과 분류기호는 <표 II-3>와 같다.

<표 II-3> 관심사와 내용의 범주 구분과 분류기호

관심사 상위범주	관심사 하위범주	내용 하위범주	내용 상위범주
100 대상자녀의 학교생활	110 학교적응	따돌림, 차별적 시선, 상황대처경험, 학습법, 불능감, 슬픔, 절망, 기쁨	정보 나눔
	120 학업성취		정서표현
	130 또래관계		
200 가족의 일상생활	210 자녀의 일상	몰이해, 차별적 시선, 상황대처경험 슬픔, 분노, 기쁨, 수용	정보 나눔
	220 배우자 및 비장애 자녀와의 일상		정서표현
	230 방계가족, 이웃과의 일상		
300 역할에 대한 반성과 자기인식	310 자녀와의 심리적 관계	우울, 불안, 좌절, 기쁨 희망, 의지를 다짐	정서표현,
	320 배우자 등 다른 가족과의 심리적 관계		위로와 격려
	330 자기인식		
400 병원/진단	410 병원진단	치료경험 공유 당황, 슬픔, 분노, 의심, 수용 희망, 수용, 의지를 다짐	정보 나눔
	420 약물복용		정서표현
	430 의료수가/ 진료비		위로와 격려
500 대체치료 정보	510 인지/언어/사회성	치료정보 공유 희망, 노력, 의지를 다짐	정보 나눔
	520 심리상담		위로와 격려
	530 약물대체치료		
600 친목/동호 활동	610 안부	안도감, 감사 제안	정서표현
	620 감사		
	630 모임운영/오프라인 모임		정보 나눔

축코딩은 범주를 하위범주와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으로,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방식을 통하여 재조합하는 단계이다. 축코딩에서는 하위범주들을 연결시켜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그리고 결과(consequences)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패러다임모형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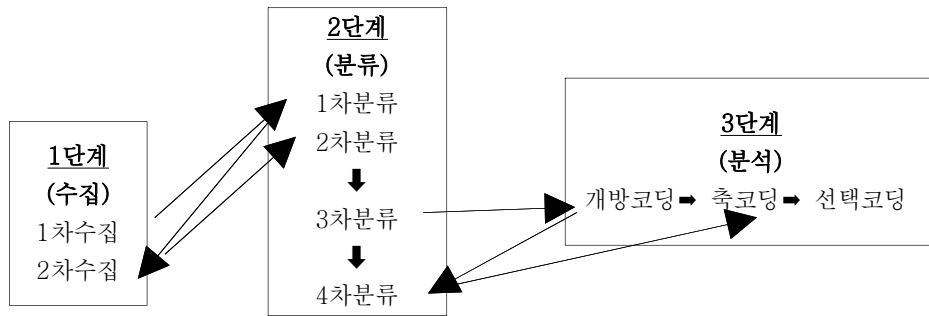
개방코딩이 시작되고 4차 분류가 이루어진 때에 축코딩의 초기 단계가 이미 시작되어 이 단계 역시 다른 단계와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개방코딩을 통하여 각 하위범주들을 분류하고 범주화 한 후에 각 하위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구별하고자 하였으나 관심사 내용범주가 중심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회원의 가입 시기 등 기왕에 분류한 영역들이 명확한 속성과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축코딩으로서 중심현상과 관련한 인과적 조건 등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그 개념을 다시 기왕의 자료에 근거하여 새로운 범주로 명명하고 각각의 속성과 차원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개방코딩에서 완성된 3개의 내용 상위범주의 분류영역을 차원,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표 II-4> 와 같다. 축코딩에서는 내용 상위·하위범주들을 검토하여 인과조건과 중심현상을 개념적으로 명명하고 그 개념에 맞는 초기 글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적인 속성과 차원을 규정하였다. 중재조건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에서 나타나게 하는 범주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3개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속성과 차원을 정하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원자료로서의 각 개인들의 사례 글들을 패러다임상의 맥락에 맞추어 보았을 때 서로 뚜렷한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추상화하여 4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기 속성과 차원을 정하였다. 결과로는 각 유형을 가진 사례 글의 작성자들이 보인 결과를 3개의 하위범주를 나누어 속성과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표 II-4> 내용 상위범주의 속성과 차원

내용 상위범주	정보나눔		정서표현	위로와 격려
	속성	차원		
속성	방식	방향	방식	방향
차원	열림 대 닫힘	줌 대 받음	열림 대 닫힘	줌 대 받음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은 이론을 구축해 가는 과정으로 선별된 예문을 중심으로 핵심범주(core category)와 다른 범주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기본적 사회 심리적 과정(Basic Social Psychological Process:BSPP)으로써의 중심주제(central theme)을 찾게 된다. 선택코딩의 단계에서는 축코딩에서 드러난 조건과 결과를 구체화하여 조건 매트릭스(condition matrix)를 구성하고 인터넷 동호회에서 부모들의 상호작용유형간의 역동과 동호회의 변화에 관한 이론, 중심 현상과 그 전환체제(transitional system)의 상호작용, 혹은 그 상황경로(conditional path)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상황/결과 모형은 집단, 단체와 개인단계(collective, group & individual level), 상호작용 단계(interaction level)에서 설명되었다. 이상과 같은 전체 과정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수집 · 분류와 분석과정

5. 윤리적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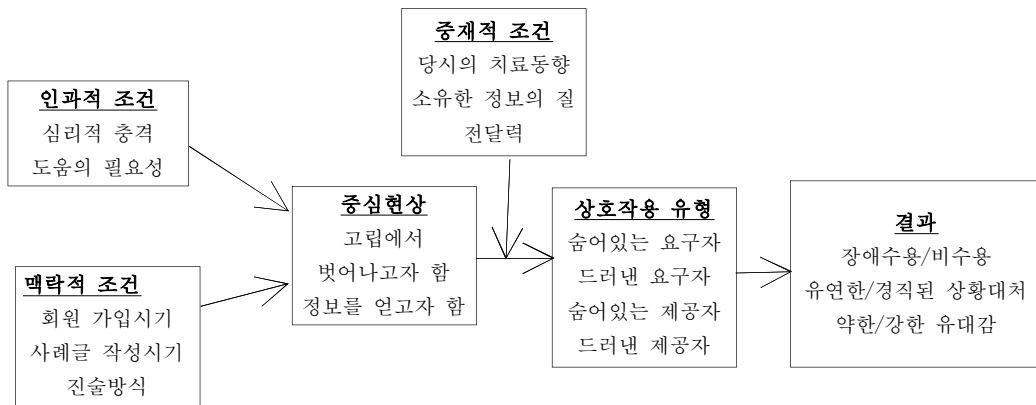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05년 11월 17일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회원들에게 연구자의 연구의도를 설명하고, 자료의 선별과 분석과정에 관한 계획안을 운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를 회원들에게 구하였다. 동호회 운영자 2인과 동호회 회원들의 답 글을 통하여 동의를 얻은 후,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 할지라도 제보자가 꺼려하리라 예상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글에 나오는 이름 및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연구자는 가상 커뮤니티에 참여관찰자 수준을 유지하였다.

6. 연구방법의 검증 과정

연구자는 자료를 반복하여 살피고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예문을 찾아 자료의 표집을 다원화하였으며“판별적 표본추출”(discriminant sampling)을 시도하였다. 또한 개방코딩 범주를 개발하고 축 코딩을 통해 이들 범주를 상호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쳐 이론을 구성한 후에“보충적 타당성”(supplemental validation)을 위해 문헌을 참고하였다. 연구 진행 중에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거침으로써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관점을 구하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1985). 또한“외부 감사”(audit)로써 글의 초록을 완성한 후에 특수교육학 교수 및 특수교육 연구원에게 연구과정을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 검사하고 정확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Lincoln & Guba, 1985).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동호회 게시판의 글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적 만남, 부모강연회 등을 통한 집단 간 만남, 동호회의 조직의 변화 등에 지속적으로 주목하였으며 각 현상들이 연구결과에서의 과정분석을 통해 추상화된 상황/결과모형(Consequential Matrix)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III. 결과

Strauss와 Cobin(1990)이 구안한 분석틀에 따라 이 연구에서 드러난 장애아 부모의 동호회 활동 상호작용 유형 나아가 상호작용을 통한 고립감 극복과 대처에 대한 이론모형은 아래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장애아 부모의 상호작용 및 고립감 극복과 대처에 대한 이론모형

1. 장애대처 전략으로서의 4가지 상호작용유형

자녀의 장애 대처 전략으로서의 상호작용 전략은 의사소통 방식인 단행 대 열립과 의사소통 방향인 줌 대 받음의 조합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숨어있는 요구자’는 주로 익명의 관계에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부모는 대개 학업상의 어려움이나 또래관계에서 따돌림을 받는 자녀의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한 후 치료나 학습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글을 올린다. 이 유형은 자녀가 유능하게 학습하고 대처하도록 도움으로써 차별적인 시선을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희망’을 갖고, ‘의지를 다지는’ 경우가 많다. 동호회를 단지 정보 제공처로 이용할 뿐이며, 종단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관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호회의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짧고 남긴 글이 적다.

‘드러낸 요구자’는 자신을 개방적으로 드러내며 고참 회원에게 정보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우울, 당황, 분노, 좌절’ 등에 대한 강한 정서표현이 많고 자신의 불능감과 좌절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상황대처 경험이나 치료정보를 많이 얻고자 한다. 이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약물치료와 부모

상담에 임하면서 보다 많은 자료를 찾아 동호회에 가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는 부모로서 자녀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가정과 학교에서 장애로 인한 갈등상황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 내에 동호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이 유형의 부모 중 일부는 자녀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동호회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노출한데 대해 당황함을 느끼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였다가 자녀의 문제로 여전히 정서적 고립감을 느껴 다시 동호회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도 있다. 드러낸 요구자 유형이었다가 다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한 회원은 주로 ‘숨어있는 제공자’ 유형이 많았다.

‘숨어있는 제공자’의 유형은 주로 익명의 관계 안에서 고립감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자신과 자녀를 드러내지 않은 채 대체치료나 학습방법, 병원/진단과 관련한 정보나눔에 주력하는 유형이다. 여러 개의 내용 영역에 많은 관심과 자세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주로 자녀의 현재 상황 및 자녀의 장애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며,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자녀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때로 그들은 다른 동호회원이 심리적 충격 상태에 오래 빠져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특정 치료법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피력하는 경향도 보이며, 다른 동호회원이 자신의 주장에 반론을 할 경우 오히려 상처를 쉽게 받는 편이다. 이들의 상호작용 유형은 직선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해 게시판 내에 논쟁을 불러오는 경우가 빈번하며 동호회 회원들과 의견충돌이 생기는 경우, 감정적인 글을 남기고 동호회를 탈퇴하거나 말없이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을 보인 초기글에 대하여 추적한 결과, ‘숨어있는 제공자’유형이 동호회 활동을 오래 유지하는 경우 ‘드러낸 제공자’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드러낸 제공자’는 대체로 우선 가입 초기에는 ‘드러낸 요구자’ 및 ‘숨어있는 제공자’의 유형이었으나 장기적으로 상호작용 유형을 개방적으로 변형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이 유형중 고참의 경우는 그동안의 치료경험이나 가족의 일상생활 등을 나누는 과정에서 풍부한 체험적 정보와 지식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장애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동호회 회원들의 닉네임과 상황을 파악하며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구체적인 정보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동호회에 남는 고참의 경우에는 자녀의 장애 정도가 좀 더 심하고, 장기적으로 발현된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에 ‘드러낸 제공자’인 고참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는 심리적 어려움 및 실패의 경험까지 나누어주고 있다.

2. 동호회 활동의 인과조건 : 자녀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도움 필요성’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인과적 조건으로는 자녀의 장애에 대한 (a) 심리적인 충격과 (b) 정보의 필요성이 있다. 초기 글의 모든 내용범주에서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고 난 이후의 충격, 낭패감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대체로 초기 글에 나타나는 주된 관심사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적응 행동, 학업성취, 혹은 학습부진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초기 글은 대체로 동호회에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장애로 인해 겪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회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 요구(“도움필요성”)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략)우리 아이는 7살 남자아이구요, 약(페니드) 먹인지는 한 달 되었는데 별다른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중략) 선생님한테 검사 결과 들었을 땐 1년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건 저에게 희망을 주려했이었을까요? 답답합니다....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요. 이런 카페를 알게 되어 위로가 됩니다.(글번호 426*신참의 초기글)

3. 대처전략의 중심현상 :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함’과 ‘정보를 얻고자 함’

해당 부모들이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와 도움을 구하는 행위는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부모들과의 직접,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고 적응하며 이에 대처하려는 하나의 장애 대처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동호회에 참여한 부모들 간의 상호작용의 중심현상은 (a)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함과 (b)정보를 얻고자 함이다. 자녀의 장애라는 강도 높은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인 충격’은 학교에서의 ‘따돌림’, ‘차별적 시선’이나 자녀의 학업 성취 실패에 따른 ‘불능감’, 배우자나 방계가족, 이웃과의 일상에서 겪는 ‘몰이해’와 병원진단과 약물복용, 치료 등에서 겪는 정보 부족에 따른 ‘당황’과 ‘분노’, ‘의심’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나 고립감으로 나타난다. 개인은 동질적인 문제를 가진 부모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자신이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다질’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한다.

아들 친구엄마가 우리 아들 책 좋아하는거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 집 아이는 전국의 초등학교생이 깜빡 죽는 ‘마법 천자문’도 엄마가 사서 읽어라~노래를 불러야 겨우 한 번 읽는답니다. 그러니 책 하나 사주면 책이 닳도록 읽고,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듣는 사람 괴로울 정도로 떠들어 대는 우리 아들이 부럽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아들 키우며 터져 나가는 내 가슴을요.(중략) (글번호: 64* 고참의 초기글)

4. 대처전략이 형성되는 맥락적 조건: 회원가입시기, 글 작성시기, 진술방식

연구 참여자들이 장애 대처전략을 형성하고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소위“상호작용”의 맥락적 요소로는 (a)회원 가입 시기 (b)사례 글 작성 시기 (c) 글의 진술방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부모들의 상호작용 및 장애 대처 전략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초기 글은 개인적으로 경험한‘차별적 시선’이나 ‘몰이해’에 대한 사례를 직접 밝히며 다른 회원들의‘상황대처경험’을 묻거나 ‘슬픔’,‘당황’등의 정서를 공유하거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위로 받고자 하는 내용의 글이 많다. 가입시기와 관련하여 고참과 신참의 초기 글은 그 전반적 내용은 유사하나 신참의 초기 글이 고참의 초기 글에 비해 보다 성숙되고 객관적으로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참의 초기 글이 진단, 약물복용, 대체치료 정보 등의 내용범주에서 독백체로 자신의 경험사례를 반성하며 앞으로의 치료경과에 불안을 드러내는 일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반면, 신참의 초기 글은 보다 빠른 시기에 부모 양육태도의 반성, 방계가족과의 관계개선 방법에 대한 질문, 동호회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다른 회원들을 만나 대화하듯 편안하게 진술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글 작성시기로 고참의 이전 글과 요즘 글을 비교하여 보면, 2003년과 2004년에 동호회가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제 1기, 제 2기 부모교육실 이후 자녀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글이 많아졌으며, 고참의 요즘 글에는 신참의 초기 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서를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내용이 빈번하다.

(중략)님들의 부지런함과 세심함에 끊임없는 관심에 눈물 흘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어느 정도는 다했다고 생각하면서...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어찌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도 더 관심을 못 가져주는 것도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님들의 글 계속해서 저의 디딤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엄마인 제가 더 당황스러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느슨해진다 싶은 때마다 님들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글번호 381* 신참의 초기글)

글의 진술방식과 관련하여 글 내용범주와 글 진술방식간의 상관성을 고찰하기 위해 2차 분류된 390개의 사례 글을 대상으로 진술방식별 내용범주의 차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독백체”진술방식을 보이는 글들은 구체적인 치료법(약물복용, 대안적 치료, 인지적 치료, 행동수정, 혹은 심리적 접근)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등 다양한 정보를 나누거나 자신과 자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상황대처 경험을 반추하는 자기반성적 일기 형식의 글이 많았다. 이에 반해 “대화체”진술방식은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서표현이나 개인적 일상을 전달하는 정보 나눔의 글이 많았다. 그러나 한 고참의 사례 글을 대상으로 종단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그가 선호하는 진술방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글의 내용범주가 동일한 서로 다른 고참의 사례 글 20개 이상을 검토한 경우에도 진술방식이 다양하였으므로 회원 참여시기, 글 작성시기와 글의 내용, 혹은 진술방식이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5. 대처전략으로서 상호작용의 중재조건: 치료동향, 소유한 정보의 질, 전달력

부모들 간의 상호작용에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재조건으로는 (a)당시의 치료동향 (b)소유한 정보의 양과 질 (c)전달력을 들 수 있다. 정보나눔 글 게시판에는 자녀의 학교생활, 가족 일상생활에 대한 글 외에, 동호회의 특성상 특히 ADHD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 회원 전체가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2004년도 하반기에는 ADHD의 대체의학(예를 들어 뉴로 피드백, 뇌 호흡, 한약처방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대체의학 문의 및 처방의 신뢰성에 대한 질의응답 글이 많아짐으로써 ‘정보 나눔’에 당시의 치료 동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두 번째로, 각 회원이 소유한 정보의 양과 질은 각각 달랐으며, 개인이 소유한 정보의 질은 그가 경험한 체험적인 내용들과 문서화된 지식정보들에 대한 접근성으로 결정된다. 초기글에서 각 개인은 자녀의 부적응 행동, 학습부진과 관련된 경험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슬픔,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며 이에 대한 대처나 도움 등 교육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섭렵한 고참은 ‘준전문가’로써 다른 회원이 요청한 정보에 답하거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또는 체험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이 가진 정보가 양질의 것이고 당시의 치료동향을 반영한 것이더라도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상호작용의 주요한 중재적 요소이다. 한 예로 게시판 글을 간략하고 매끄럽게 작성하거나, 제목을 선정하는 일, 유머감각도 전달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6. 상호작용의 결과

장애 수용 및 이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써 상호작용의 결과는 (a) 장애 수용/비수용, (b) 유연한/ 경직된 상황대처, (c) 약한/강한 유대감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각 개인은 그가 가진 대처전략으로써의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거나 그렇지 못하며, 문제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혹은 경직되게 반응하고, 동호회에 대하여 약하거나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된다.

동호회원의 대처전략으로서의 상호작용 유형과 그의 활동 간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년11월 게시글 96개를 작성한 회원 25명의 이후 게시글을 중단적으로 추적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5명중 글 작성 이후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중단한 회원은 8명이었고, 2005년까지 남아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은 9명이며, 대다수의 회원은 2004년 중반까지 유지하였다. 초기글에서 동일하게 ‘드러낸 요구자’의 전략을 사용한 회원 중 활동을 단기에 중단한 회원A의 사례글(글번호 25*)과, 최근까지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고참 회원B의 사례글(글번호 24*,100*,787*)을 비교하면 초기글에서는 두 회원 모두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동호회에 대하여 약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회원 B는 점차 ‘드러낸 제공자’의 상호작용 유형으로 변화하며 장애를 수용하고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믿으며 동호회에 대하여 강한 유대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와 또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끌다시피 데리고 갔죠. 갑자기 놀이치료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먼 곳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이럴 땐 저도 답답합니다. 또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는지, 희망은 잡힐 듯 하다가도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글번호 25*)(회원 A의 초기글)

약 먹이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니까 언어만 좋아지면 좋겠다고.(중략) 그때마다 아이가 절 돌게 합니다. 그래도 그 전에는 말로 하면 먹혔는데, 지금은 제 애긴 듣지도 않고 무조건 우기고 소리지르고...(중략) 우리 아이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해, 약 먹인다는 얘기도 아무한테도 안할 생각인데, 잘하는 생각인지.(글번호 24*)(회원 B의 초기글)

엄마들의 눈물과 한숨과 희망의 글들. 어느새 아우성에 올라온 글들이 천개가 넘었네요. 울 카페 생기고 대기록이라면 대기록인데 광파레라도 올리고, 짹짹 박수도 치고 자축기념식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무엇보다 지금까지 카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님, **님, **님 등 운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떡이라고 해서 돌릴까, 이거? (글번호 100*)(회원 B의 글)

뭘 신고하냐면요, 저 이사 간다구요! (중략) 이 정도면 정말 우리 아이 1학년 생활, 좋은 선생님 만나 행복하게 보낸 거죠? 이사 가서도 울 아이 학교생활,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새해 소망이에요. 올해 못 이루신 소망들 있으시다면 내년에는 꼭 이루시기 바라며 우리 카페 맘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번호 787*)(회원 B의 최근글)

‘드러낸 제공자’로서 고참들의 활동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신참들의 초기 글에는 심리적 충격에 의한 불안과 슬픔을 호소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드러낸 요구자’의 전략이 뚜렷이 나타났고, 정보나 위로, 격려 등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정서 표현이나 고립에서 탈피하여 가고 있는 경험도 서술되고 있다.

다른 회원의 성취를 대하는 태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상호작용유형과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동호회 초기인 2003년에는 다른 회원이 자랑삼아 하는 이야기들이 불편하다고 언급하거나 다른 자녀가 호전을 보이고 있음에 대해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며 슬픔을 호소하는 ‘숨어있는 요구자’가 많았는데, 이는 동호회의 유대감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숨어있는 요구자’들은 대체로 장애 수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경직된 대처방식을 나타낸다.

그러나 최근 동일한 유형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동호회원들이 함께 기뻐해주고 있는데, 아래 예시의, 한 고참의 요즘 글에서처럼 강한 유대감을 가진 회원들은 자신의 기쁨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타인의 이목을 걱정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의 즐거움을 동호회 게시판에 나누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의 경우 장애 수용과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유연하다고 특징 지을 수 있다.

오호호호...울 **님 어제 현장학습 갔었는데.. 오후 4시경에 올 때가 되었거니.. 제가 띠리리 전화한통을 때렸어..**가 흥분된 목소리로.."엄마 나 상 받았어여..."한다.. "어? 무슨 상? 울 ** 기분 엄청 좋겠네?"자초지중 알고 보니..가족신문 만들기에서 우수상 받아왔다는 말이더군여.. (중략)팔볼출 맞기는 맞는데.. 오늘은 돌 던져도 한 개도 안 아플것 같아.. 이리 자랑을 늘어놓고 갑니다여...열 분들께 이 해피한 오늘 기분을 쫓 식 나눠 드릴 것이니.. 바가지 들고 한 줄로 서실 것을 권합니다.(글번호 461* 고참의 최근글)

이상과 같은 상황경로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별 패러다임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아래 <표 III-1>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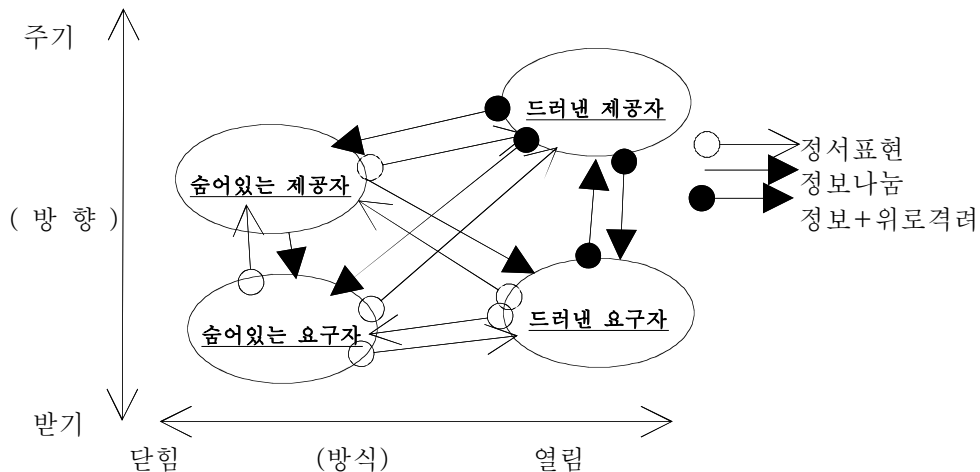
7. 주된 상호작용전략에 따른 회원간 상호작용 내용

현상적으로 나타난 한 개인이 사용하는 주된 상호작용 전략은 가입시기나 글의 작성 시기, 그리고 진술방식이라는 맥락적 조건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부모 동호회의 한 회원이 하나의 주된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회원간에 전달되는 상호작용 내용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결국 이러한 개인의 주된 상호작용 전략은 각 회원의 주된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그의 동호회

의 유대감 강화나 약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이러한 동호회 내의 상호작용 역동성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III-2]과 같다.

<표 III-1> 상호작용 유형별 패러다임 범주의 속성과 차원

상호작용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숨어있는 요구자	숨어있는 제공자	드러낸 요구자	드러낸 제공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심리적 충격	강도	강함	강함	강함	강함
	도움이 필요함	정도	강함	약함	강함	약함
중심현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함	태도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	적극적
	정보를 요청함	강도	강함	약함	강함	약함
맥락적 조건	회원가입시기	-	-	-	-	-
	사례 글 작성 시기	-	-	-	-	-
	진술방식	-	-	-	-	-
중재조건	당시의 치료동향	민감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소유한 정보의 질	가치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전달력	효과성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상호작용 전략	방식		단힘	단힘	열림	열림
	방향		반음	좁	반음	좁
결과	장애수용	본질	비수용	비수용	비수용	수용
	상황대처	형태	경직됨	경직됨	경직됨	유연함
	유대감	강도	약함	약함	강함	강함



[그림III-2] 주된 상호작용 전략에 따른 회원간 상호작용 내용에 대한 모형

IV. 논의 및 시사점

1. 대처전략의로서의 인터넷 동호회: 상호작용을 통한 고립감 극복

이 연구는 근거이론에 바탕을 두고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장애아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 나아가 상호작용을 통한 고립감 극복 및 대처에 대한 이론모형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도움이 필요한’때라는 필요(인과적 조건)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동질집단을 만남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나고자’하였으며 ‘정보를 얻고자 함’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서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부모들은 인터넷 동호회에서의 사례 글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호작용을 맺는데, 이처럼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극복 등 대처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조건이 영향을 미쳤다. 이때 맥락적 조건이란 회원으로서의 가입시기와 사례 글의 작성 시기, 그리고 진술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중재조건(당시의 치료경향, 소유한 정보의 질, 글 전달력)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부모들의 상호작용 및 장애 대처 전략형성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처전략으로써 인터넷동호회를 통한 장애아 부모들의 상호작용 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숨어있는 요구자’는 자신을 개방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동호회를 통하여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정서표현이 적고 간략하게 자녀의 상황을 기술한 후 정보를 요청하는 유형으로 동호회를 정보 제공처로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동호회원으로써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적다. ‘드러낸 요구자’는 자신을 개방적으로 드러내며 기존의 동호회 회원에게 정보와 위로를 얻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으로 이 유형을 주로 쓰는 이들은 정서표현이 풍부하고 치료방법이나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정보의 요청이 많다. ‘숨어있는 제공자’는 자신을 개방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상대방에게 나눔으로 인해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장애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의지를 다지는 유형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황대처에서 실패한 경우 독백체로 분노를 표출하는 정서표현 글을 올리는 경우도 함께 나타난다. 그러나 초기회원에 대한 추적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동호회 활동을 유지하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낸 제공자’의 유형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다. ‘드러낸 제공자’는 대체로 ‘드러낸 요구자’의 유형이나 ‘숨어있는 제공자’의 유형으로부터 성장한 고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그동안의 경험과 높은 전달력을 토대로 질 높은 정보, 삶을 공개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신참들에게 정보와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주는 활동을 한다.

장애아들 둔 부모들이 장애대처방식의 일환으로 인터넷 동호회 상에서 어떠한 상호작

용전략을 주로 쓰는가에 따라 각 개인의 장애 수용 여부, 자녀 장애로 기인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가능성 여부, 나아가 동호회 소속감의 정도가 결정되며, 또한 역으로 회원들의 장애수용 여부, 정도 및 대처방식이 동호회 상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안전한 쉼터'와 '아고라(Agora)'로서의 인터넷 동호회 공간에 대한 고찰

동호회는 초기에 '숨어있는 요구자' 유형의 구성원이 대다수인 '약한 공동체'로 출발하였으나, 만 2년의 시간 경과 속에서 쌍방간에 정보 나눔, 정서표현, 위로와 격려를 표현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면서 강한 유대감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로서 성장하였다. 회원간의 상호작용과 집단역동성이 동호회 성격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봤을 때 장애아를 둔 부모 동호회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은 '안전한 쉼터'와 '아고라'라는 2가지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동호회라는 공간은 회원들이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고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장소라는 점, 나아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우울이나 낭패감,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안전한 쉼터'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동호회는 단순한 정보교환에서 한걸음 나아가 해당 장애와 관련된 여러 사회, 정치적 이슈(장애와 관련된 약물, 치료 체계의 비효율성, 사회의 차별적 시선)에 대해 자녀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부모들이 세력을 규합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역할 한다는 의미에서 동호회 공간을 '아고라'로 규정할 수 있다.

사례 글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던 회원들의 부정적 정서(만성적 슬픔, 부정, 죄의식과 분노 등)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점차 변화되고, 나아가 회원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부모들의 우울감 감소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은 대처전략으로서 동호회 내부의 소속감과 친밀감이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망의 크기보다는 회원관계의 안정성 및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며, 나아가 이를 보장하는 전자우편 교환이나 동호회 게시판 이용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회원의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영준, 2002)결과와 유사하다.

'아고라'로서의 동호회 공간과 관련해서는, 장애 수용에 대한 사례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스스로 자기반성을 하며,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부모교육을 통해 장애수용에 대한 관점을 정립시켜 왔다. 또한 장애수용과 관련된 대처전략에서도 고참회원들이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호회 회원의 정보수준이 높아지고, 이러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자들을 통해 동호회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동호회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2006년 이후 동호회 운영자 증원(3명에서 10명으로), 동호회 게시판 확대 개편, 공동 규약 강화, 지역별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부모강연회 개최, 기

금 마련, 사회봉사 참여 등이 새롭게 나타난 변화이며, 사회, 정치적 이슈 (대외 홍보 활동, 의료보험혜택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본 인터넷 동호회가 초창기의 약한 공동체에서, 서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점차 두터운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선행연구(Hagel & Armstrong, 1997; Chavis et al., 1986; 윤영민, 1999; 장용호, 2002)에서 언급되는 ‘공동체적 유대감’ 가진 인터넷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인터넷 동호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에 제한을 두는 폐쇄성 및 공동관심을 바탕으로 동호회 내부의 개방성과 유대감을 강화시키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동호회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점차 개인 신상정보가 제공되고, 오프라인 만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속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상의 익명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숨어있는 요구자’나 ‘숨어있는 제공자’ 집단과 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진 이익단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는 ‘드러낸 요구자’나 ‘드러낸 제공자’ 집단간의 거리감은 이후에 동호회의 유대감과 방향성에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 부모 자조 모임으로서의 이 인터넷 공동체의 과제는 점차 확대되는 이익단체로의 전환이나 사회-정치적 이슈를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는 세력과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세력간의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목표를 인식하고 두 세력의 공존을 보장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공희자, 문재우 (2004).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 297-317.
- 김수경, 전귀연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장애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6), 23-42.
- 김지현 (2003). **부모동호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난 부모 관심사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서문석, 김유경, 서용한(2002).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영-경제연구**, 21(1), 1-20.
- 서이종 (2002). **인터넷커뮤니티와 한국사회**.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석인수 (2001). **사이버교육을 통한 발달장애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수용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신현기 (1999). **장애아동 부모교육론**. 서울: 특수교육.
- 유희정, 강연옥, 이훈진 (2004). 아동의 장애유형과 어머니 애착유형이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2(1), 77-89.
- 윤영민 (1999). 가상 공동체의 공동체성, 정보화 시대의 사회구조와 문화. **한국사회학회 추계심포지엄 자료집**, 158-159.
- 이경면 (2003). **가정 및 지역 사회 환경 맥락을 중심으로 한 자폐성 장애유아의 가족 중심 교육 활동에 관한 생애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경아 (2005). **사이버 공동체를 활용한 발달지체 영-유아 아버지 지원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영준 (2000). **컴퓨터매개 의사소통에서 지각되는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장용호 (2002). **사이버 공동체 형성의 역동적 모형**. 서울: 집문당.
- 주리아 (2001). **인터넷에서의 부모교육 관련 사이트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PSI): *Manual Pediatric*.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urkhalter, B.(1999). Reading race online: Discovering racial identity in usenet discussions. In M. A. Smith & P. Kollock(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London:Loutledge.
- Chavis, D., & Newbrough, J. R. (1986). The Meaning of community in community Psych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335-340.
- Donath, J. S.(1999). Identity and deception in the virtual community. In M. A. Smith & P. Kollock, P.(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London: Loutledge.
- Field, T. (1978). The three R's of infant-adult interactions: rhythms, repertoires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 131-136.
- Field, T. (1980). Interactions of high-risk infant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fference. In S. B. Sawin, R. C. Hawkins, L. O. Walker & J. H. Penticuff (Eds.), *Exceptional Infant* Vol. 4. Psychosocial risks in infant-environment transactions, 120-143. NY: Brunner/ Mazel.
- Gargiulo, R. M. (1985). *Working with parents of exceptional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Gammon, E. A. S. (1989). *The coping skills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 assessment*. Unpublished manuscript. Madison.
-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Hagel, J., & Armstrong, A. (1997). *Net gain*, Harvard business school.
- Harasim, L. M.(1993). *Global network: computer and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 Heim, M.(1993). *The Metaphysics of virtual reality*. NY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Brien, J. O.(1999). Writing in the body: Gender (re)production in online interaction. In M. A. Smith & P. Kollock.(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London: Loutledge.
- Poster, M.(1994).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김성기(역) **뉴미디어의 철학**. 서울: 민음사.
- Sharon, L. J. (2001). Computer application in program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16(1), 29-40.
- Strangelove, M.(1994). The Internet, electric gala and the rise of the uncensored sel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Magazine*, 5. [Http://www. December.com/cmc/mag/1994/sep/self.html](http://www.December.com/cmc/mag/1994/sep/self.html).
- Strauss, A. & Corbin,(2001) **J.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역), 서울: 현문사,
- Turkle, S.(1996).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internet*. NY: Simon & Schuster.
- Pearlin, L. I. & Schooler, C. (1987).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Interactive Patterns of Par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on Cyber Community

Rhie, Suk-Jeong

Dankook Univ.

Lee, Kyung-Ah

BK21 Project Force of Special Education,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of an interactive model between the web site club-members in cyber space. A club in cyber space has a large anonymous membership in general, so it is in need of specific methodical approach to find out the interactive relations and influence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 Corbin(1998), a self help-club in cyber space of pare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ADHD)in Korea and its interactive styles as coping strategy were analyzed to construct an theoretical model of interaction between their parents. The results showed their interaction started from a causal condition "need help" and "shock" and through the interactions with various forms(encouraging, express their feelings, information etc.), the parents tried to overcome their shock and could accept the handicaps of their children. Furthermore there are another factors, which influence complexly how to build their own coping strategy: 1) contextual conditions (period of membership, the time of writing out and styles of messages) and 2) medial conditions(the quality of information and the types of delivering messages). In the various communicative styles of interaction provides this self-help club for parents 1) security base 2) "agora" for their social-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 cyber community, grounded theory, coping strategy, interactive model

논문 접수: 2007. 1. 18 심사 시작: 2007. 2. 20 게재 확정: 2007. 3. 23